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긴급 회의
일시	17. 12. 10 12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12/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O	O	O	O	O	O	O	O		O	O	O	O

❑ 보고 안건

1. 2017-12-10(일) 12:00 총학생회실, 기획처 면담 진행.

❑ 논의 안건

1. 정원이동 관련 단과대학별 논의를 위한 가안 선택

: 각 단위별로 정원이동에 관련하여 현 대학 차원의 논의에서 세부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단과대학 내에서 다시 한 번 합의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학부제 등으로 묶여 있는 사항에 대해 현 수정안에서는 고려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각 단과대학별로 수정 1~3안에 대해 선택하여 그 안에 따른 학과/부 별 정원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단운위 내에서 논의, 학생회를 비롯한 각 학과/부장, 단과대학 학장과 협의 시도 필요. 이하 각 단과대학 별 선택과 그 근거.

- 경영경제대학: 현 비대위로 관련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듦. 따라서 수정 1안~3안 중 확정적인 선택은 곤란하나 경영경제대학 내부 정원 감축비를 고려하였을 때 수정안 중 1안 또는 2안.
- 공과대학: 2019년 공대에서 고통을 다 안으면서 행정처분을 받고 정원 감축을 줄이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함. 또한 커리큘럼 조정 등 2019년 실질적으로 공대가 안는 피해에 대해 논해야 함. 수정안 중 3안.
- 자연과학대학: 자연대 자체적으로 수정 1안~3안 모두 찬성할 수 없음. 모든 학과가 기초학문이므로 보호가 필요, 한 명이라도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기초학문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소수 학과 밑 기초학문 보호를 다시 적용한 이후 일괄 계산해야 함. 수정안 중 1안 또는 2안.
- 인문대학: 수혜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학교 주도 사업에 의한 인프라, 인원적 수혜가 특정 단과대에 집중되었던 과거부터의 총체적인 증감,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온 단과대학에 대해 고려해야 함. 2020년 큰 감축이 일어나는 단위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보상안을 논해야 하며 인원으로 보상받을 부분이 아님. 수정안 중 1안.
- 사범대학: 19년도 공대 정원 감축에 대한 확정적인 보상안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을 고려해야 함. 각 단과대학 별로 수혜에 대해 논한다면 논의가 끝나지 않을 것. 의견 제시가 조심스러우나 수정안 중 2안 또는 3안.
-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가 정원감축에 해당. 학부로 묶여 있어 현재 소수학과 관련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학생회실도 없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으므로 수정 1안이더라도 부정적. 공과대학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수정안 중 2안.
- 약학대학: 약학대학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2019년 공대 정원 감축으로 커리큘럼이 변경될 경우 공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그러나 2019년 108명 감축의 보상안으로 감소정원 전체를 충원하는 것은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라 생각. 수정안 중 1안 또는 2안.
- 간호대학: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과거부터 여러 변화가 있었으므로 특정 단과대학의 수혜와 피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영구적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사안이므로 총체적인 시각을 배제하여 판단해서는 안 됨. 수정안 중 1안 또는 2안.
- 사회과학대학: 정원이동 관련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진행했으나 수정 2안의 설정에 정당한 소통 과정이 없

을 경우 폐기한다는 내용의 의결이었음. 19년도 공과대학 정원 축소분에 대해 학생 수업권 보장, 커리큘럼상의 피해 구제, 교수 수 미감축의 보장이 있다면 20년도 이후 인원 유지가 되므로 공과대학 제외 감축은 중복적인 보상으로 판단. 소수 학과가 많은 환경, 보호가 필요한 상황. 수정안 중 1안 또는 2안.

- 동아리연합회: 절대적인 감축 인원수는 공과대학에 피해로 보일 수 있으나 많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난 정원감축 역사를 절대적인 감축 인원수로 보았을 때 공대가 급작스레 줄긴 하지만 오랜 정원 증감의 역사를 배제하고 판단할 수 없음. 수정안 중 1안 또는 2안.

❑ 의결 안건

1. 각 수정안 별 단과대학 할당 감축정원에 대한 학과/부 단위 재협의 요구

: 각 단과대학 별 학부제로 묶인 단위 감축분에 대한 단과대학 내 논의 필요. 실질적으로 30명 미만의 소수과가 발생할 수 있는 학부제 내 전공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단위의 입학정원 수만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정원 감축분을 분담시킨 상황. '소수과의 보호'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단과대학 단위로 협의 가능 단위 있을 수 있으므로 12일 교무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중운위 의견을 전달, 예상 논의 종료일인 21~22일 워크샵까지 정원 조정에 대한 단과대학 내 학과/부 합의에 의한 감축 정원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요구.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기존 본부가 제시한 안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 다만 실질적인 소수과에 대한 배려를 신중히 논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운영위원회 공통 의견.

: 12월 11일 공문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견으로 기획처 송부, 12일 개회 될 교무위원회에 전달 예정.

- 참석단위 12단위 중 11 단위 찬성. (가결)

❑ 기타 안건

1. 정원이동 관련 2차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논의 예정 사항

1. 학교 본부의 입장 표명 재요구

: 59대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에 있는 '현 사안에 대한 본부의 입장표명' 이행 필요

- 입장 표명의 구성요소: 총 2차로 나누어 진행. 1차는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되어야 할 것. 2차는 정원이동 관련 학칙 개정 완료 시점과 비슷한 시점에 업로드 될 것을 권고.

  1차: 정원이동의 배경 설명, 학교의 상황, 108명의 정원 이동분이 결정된 과정과 도덕성, 실효성, 실현가능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할 것. (전제조건: 경과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되 사전 정보가 없는 학내 구성원(교직원, 학생, 본부 등을 모두 포함)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 + 학교가 가진 데이터(지금까지 학생과 학과/부의 의견 수렴 결과, 단위별 정원 감축 계산 기준 등)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학내 구성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차: 정원 감축에 대한 본부 입장 표명과 사과, 이후 지원 방안에 대한 확답, 결과 보고

2. 단과대학 내 대단위 감축이 이루어지는 학과/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답 요구

: 수혜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은(=감축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학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이 때 타 용도로 배정될 예산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할 것.(ex적립금)

3. 차후 제출될 계획안, 감축단위에 대한 사과와 구체적 지원 방안을 반영할 것.